

# 우즈베키스탄 아지모프 부총리의 실각과 이에 대한 분석

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 학부 교수

## 주요내용

- ▶ 2016년 12월 14일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에 선출된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루스탐 아지모프 재무담당 수석부총리를 일차적으로 재무부 장관에서 해임시켰으며, 2017년 6월 6일에는 그를 부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했음.
-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과 포스트 카리모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던 루스탐 아지모프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정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카리모프가 했던 것처럼 정적을 차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데, 이러한 과정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1. 이슈 현황

- ▶ 2016년 12월 14일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에 선출된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루스탐 아지모프 재무담당 수석부총리를 일차적으로 재무부 장관에서 해임시켰으며, 2017년 6월 6일에는 그를 부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했음.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이 루스탐 아지모프를 해임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sup>1)</sup>

-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루스탐 아지모프를 해임해야만 국가재정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포스트 카리모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루스탐 아지모프를 미르지야예프 정권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함.
- 1차적으로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는 대통령에 임명된 직후인 2016년 12월 14일에 루스탐 아지모프를 재무부장관직에서 해임함.
- 2017년 6월 6일,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거시경제 개발, 구조개혁, 외국인 투자 관리, 교육 및 과학 담당 부총리 직을 유지하던 루스탐 아지모프를 이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하였음.

1) 「Radio Free Europe」

□ 루스탐 아지모프는 다음과 같은 실책으로 부총리직에서 해임되었음.

- 2017년 1월에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은행 카드 결제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 루스탐 아지모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음.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언론을 동원하여 루스탐 아지모프를 비난하는 급여생활자들과 연금생활자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도록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르지야예프 정권이 루스탐 아지모프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5월 29일 외국투자 관련 회의에서 터키로부터 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루스탐 아지모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함.
- 루스탐 아지모프 부총리는 회의가 종료된 직후 부총리직에서 사임할 뜻을 내비쳤음.

## 2. 원인과 분석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과 포스트 카리모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던 루스탐 아지모프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정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루스탐 아지모프 해임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면서부터 루스탐 아지모프가 해임되기 이전까지 외국 기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투자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음.
- 루스탐 아지모프의 해임은 후임자가 향후 우즈베키스탄으로 투자할 외국 기업체들을 그만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자국화폐인 쉘(Sum)의 가치하락과 이중환율의 격차가 3배에 달하면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루스탐 아지모프의 해임은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 사이에 전개될 씨족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음.<sup>2)</sup>

- 루스탐 아지모프의 재무부장관직 후임으로 임명된 박지요르 호자예프(Baktyr Hojaev)는 전 경제부 차관이었으며, 타슈켄트 파벌 출신임.
- 타슈켄트 파벌 출신인 루스탐 아지모프가 물러난 이후 후임으로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마르칸트 파벌에서 후임을 정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루스탐 아지모프와 같은 파벌인 박지요르 호자예프가 임명된 것을 보고 양측의 원만한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됨.

2) 「Radio Free Europe」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는 자신의 정권 출범 이후 반드시 루스탐 아지모프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의 후임으로 사마르칸트 파벌을 임명하는 것은 타슈켄트 파벌로부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같은 파벌인 박지요르 호자예프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됨.
  - 박지요르 호자예프는 카리모프정권에서 루스탐 아지모프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현 정권에서는 루스탐 아지모프가 맡았던 재무담당 수석부총리에 호레즘 출신의 아칠베이 라마토프(Achilbay Ramatov)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박지요르 호자예프는 재무를 장악할 힘이 없는 허수아비로 평가받고 있음.<sup>3)</sup>
-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의 이러한 인사정책은 타슈켄트 파벌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정적인 루스탐 아지모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은 타슈켄트 파벌과의 씨족전쟁을 준비하고 있음.
  - 카리모프 정권처럼 지역 파벌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미르지야예프 정권은 불안정한 정국에 직면하고 국정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꺾어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
- 타슈켄트 파벌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루스탐 아지모프와 같은 타슈켄트 파벌인 국가안전국 국장 루스탐 이노야토프는 포스트 카리모프 경쟁체제하에서 같은 파벌인 루스탐 아지모프가 아니라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를 지지하였음.
  - 국내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가안전국 국장이자 최고령 정치엘리트로 평가받는 그는 카리모프 정권이 독재를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음.
  - 1999년 2월에 이슬람 카리모프를 노렸던 타슈켄트 폭탄테러는 사마르칸트 파벌이 같은 파벌인 이슬람 카리모프를 살해하기 위해서 자행했다는 설이 있음.
  - 이 사건 이후로 이슬람 카리모프는 사마르칸트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슈켄트 파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노야토프 국장과 협상을 단행함.
  - 타슈켄트 파벌은 카리모프 정권을 지지하고 이권을 차지하면서 국가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 루스탐 아지모프의 해임으로 인해서 타슈켄트 파벌도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임.

### 3. 전망과 시사점

- ▶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카리모프가 했던 것처럼 정적을 처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데, 이러한 과정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3) 「The Tashkent Times」

□ 루스탐 아지모프 해임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루스탐 아지모프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를 해임한 미르지야예프 정권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토지 사유화 정책과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 올해 4월에 1만 솜(soum) 고액권을 발행하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음.
-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지만 어떤 처방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안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외국 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 단, 러시아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농업부문에 국한되고 있음.
- 품질 좋은 농산물은 러시아로 수출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자국 시장에 공급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타슈켄트 파벌의 저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국민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 가면 이를 통해서 사마르칸트 파벌을 비난할 수 있으며, 정국 안정을 위해서 미르지야예프 정권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타슈켄트 파벌의 대표자인 이노야토프 국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국정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사마르칸트 파벌의 쇼프카트 미르지야예프를 지지했는데, 향후 미르지야예프 정권이 국정 운영에 실패한다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1944년생인 고령의 이노야토프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사마르칸트 파벌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이미 실행하고 있음.

- 타슈켄트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파벌을 등용시키면서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음.
- 궁극에는 타슈켄트 파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노야토프가 여전히 견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미르지야예프 정권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IS에 누명을 씌우는 국면 전환용 폭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사마르칸트 파벌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도 가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노야토프에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집권 지역 파벌이 다른 지역 파벌들을 장악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EMERiCs**

## 참고문헌

- 「Radio Free Europe」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azimov-out-uzbekistan-government/28531755.html>
- <https://www.rferl.org/a/uzbekistan-cabinet-azimov-loses-finance-minister-job/28180134.html>(검색일: 2017. 6. 18)
- 「The Tashkent Times」  
<http://www.tashkenttimes.uz/national/294-achilbay-ramatov-appointed-first-deputy-prime-minister>(검색일: 2017. 6. 18)

##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